

한라산에 이르는 길

한라산은 은하수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은 한라산을 신선이 사는 산이라 여겼다.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생태계의 모습을 간직한 한라산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산록북로 | 제주시 노형동 산17-1 ~ 제주시 아라1동 376-28(약 9.4km)

516로 | 서귀포시 동홍동 496-1 ~ 제주시 아라1동 423-1(약 31.6km)

1100로 | 서귀포시 중문동 1918-4 ~ 제주시 노형동 918(약 33.6km)

영실로 | 서귀포시 중문동 산1-1 ~ 서귀포시 하원동 산1-1(약 4.9km)

산록남로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05 ~ 서귀포시 상호동 산108-12(약 30.2km)

돈내코로 | 서귀포시 상호동 1262-3 ~ 서귀포시 상호동 1927-1(약 3km)

산록북로 | 관음사탐방로

한라산 북쪽으로 나 있는 **산록북로**를 이용하면 관음사탐방로에 도착할 수 있다. 한라산의 북쪽 능선을 타고 오르는 탐방로인 관음사탐방로는 백록담 정상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이다. 탐방로 입구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서 관음사탐방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관음사탐방로에는 옛날 제주의 석빙고 역할을 했다고 전하는 구린굴, 솔개의 머리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삼각봉, 해질녘 노을이 비친 모습이 왕관처럼 생겼다는 왕관릉 등의 지질자원들이 독특한 경관을 보여준다. 탐방로 중간에 쉬어 가는 곳이었던 용진각 대피소는 2007년 태풍 나리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보다 안전한 삼각봉 아래에 대피소를 다시 지었다.



백록담

관음사탐방로의 끝에는 백록담이 있다. 평소에는 물을 많이 볼 수 없지만 비가 많이 내린 뒤에는 물이 가득찬 백록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움푹 패인 백록담의 모습은 원래 높은 봉우리가 있었을 것 같은 상상을 하게 한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어느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 사슴을 발견하고 활을 쏘았는데 그만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맞추고 말았다. 화가 난 옥황상제가 한라산의 봉우리를 뽑아 던진 것이 산방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516로 | 성판악탐방로

한라산 동쪽으로 나 있는 **516로**를 이용하면 성판악탐방로 입구에 도착한다. 성판악탐방로는 한라산의 동쪽 능선을 이용해 정상에 오르는 길이다. 성판악탐방로 인근에 있는 성널오름의 한자표기인 성판악을 반영해 성판악탐방로라고 부른다. 성판악탐방로는 다른 탐방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이것은 점성이 약한 용암이 동쪽으로 멀리 흘러가 완만한 경사의 지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라오름

성판악탐방로의 명소는 사라오름이다. 이 오름은 백록담처럼 화구호가 있어 비가 온 후에는 물이 차 있는 분화구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사라오름 전망대에서는 한라산 동쪽의 오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한라산은 높이에 따라 난대 식물부터 한대 식물까지 다양한 식생의 분포를 보여준다. 특히 정상 가까이에 가면 볼 수 있는 구상나무숲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상나무는 ‘살아서 백 년 죽어서 백 년’이라는 말처럼 살아서는 푸른색, 죽어서는 하얀색을 띠면서 그 자리를 지킨다. 성판악탐방로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넓게 펼쳐진 구상나무숲의 장관을 볼 수 있다.

1100로(고상돈로)/영실로 | 어리목탐방로와 영실탐방로



윗세오름

한라산 서쪽을 지나는 1100로를 이용하면 어리목탐방로가 나온다. 어리목탐방로는 한라산의 북서쪽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이다. 어리목탐방로는 백록담에는 오를 수 없고 윗세오름까지만 이어진다. 어리목탐방로에는 옛날 제주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열매를 나누어 굶주린 사람들을 구했다는 송덕수가 있다. 이 나무 밑에는 흉년마다 도토리가 많이 쌓여 있어서,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제사를 올리고 나무의 덕을 칭송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어리목탐방로의 윗세오름은 하나의 오름이 아니라 붉은오름, 누운오름, 죽은 오름 세 개의 오름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 오름들이 1100고지 인근에 있는 삼형제오름 위에 있다고 해서 위에 있는 세 오름이라는 뜻으로 윗세오름이라 부른다. 붉은오름과 누운오름 사이에 윗세오름대피소가 있어 탐방객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영실탐방로는 한라산의 남서쪽 능선을 오르는 길이다. 1100로를 따라가다 영실 입구 교차로에서 **영실로**를 따라 이동하면 영실탐방로 입구에 도착한다. 영실은 신령스러운 곳이라는 뜻으로 영실탐방로에서는 영주십경 중 하나로 꼽히는 영실기암을 볼 수 있다. 영실 계곡의 수많은 바위들은 용암이 굳은 암석들이 오랜 기간 침식되면서 일부가 남은 것이다. 이 바위들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오백 명의 자식을 둔 어머니가 죽을 뻔하다 그만 술에 빠지고 말았다. 자식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맛있게 죽을 먹었다. 곧 바닥을 드러낸 술에서 사람 뼈가 나타나자 비로소 어머니가 술에 빠진 것을 알아챘

다.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슬피 울다 그대로 바위로 굳었고, 어머니가 빠진 죽을 먹은 형들에게 실망한 막내아들은 집을 떠나 차귀도 앞바다의 장군바위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영실계곡에는 기둥 모양의 바위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모양이 마치 병풍 같아 병풍바위라 한다. 이 바위는 용암이 식어서 생긴 주상절리의 일종이다. 영실탐방로 역시 어리목대피소에서 끝이 난다.



병풍바위

1100로 인근에는 제주 출신 산악인 고상돈의 묘가 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인물이다. 1977년 9월 고상돈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 한국산악인의 자긍심을 높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인 1979년 알래스카의 매켄리산을 오를 후 하산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삶을 마감했다. 그래서 1100로에 고상돈로라는 별칭의 명예도로를 지정하여 산악인으로서의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산록남로 / 돈내코로 | 돈내코탐방로

돈내코탐방로는 한라산 남동쪽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이다. 산록남로를 이용하다 돈내코로를 따라가면 돈내코탐방로 입구에 도착한다. 돈내코탐방로는 15년 간의 휴식년제로 통제되고 있다가 2009년 다시 개방이 되었다. 예전에 한라산에 방목했던 소나 말들이 먹었던 작은 연못인 썩은물통, 소나 말의 출입을 막기 위해 나무로 엮어서 만든 문인 살채기도, 두부 모양의 바위인 둔비바위 등을 만날 수 있다.

돈내코탐방로에서는 한라산 남벽의 모습을 가까이 볼 수 있다. 백록담의 남쪽을 성벽처럼 지키고 있는 남벽은 영실계곡의 병풍바위와 같은 절리의 일종이다. 예전에는 이곳을 통해 정상을 오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에 오르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 돈내코탐방로는 남벽분기점을 지나 어리목대피소까지 이어진다.



한라산 남벽